

유의동(바른정당) 의원 답변 전문

□ 뉴스타파 답변서

1. 지적하신 자료집은 19대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후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만들어 진 자료집입니다. 당시 자료집을 만든 보좌관은 몇 년 전 직을 사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은 높은 수준의 엄밀성이 요구되는 학자의 학위논문이 아니고, 당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보고서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성과물은 학자들의 성과물처럼 반드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 문제는 인용표기를 누락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학자들과 달리 도용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받은 예산은 연구활동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국회의 예산중 자료 발간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형식은 학자들의 연구물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용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정립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 6번의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